

허혈성 신병증에 대한 임상적 고찰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상주 · 장윤경 · 전상훈 · 김형욱 · 진동찬 · 김용수 · 김석영 · 최의진 · 방병기

Diagnosis and Management of Ischemic Nephropathy

Sang Ju Lee, Yoon Kyung Chang, Sang Hoon Chun, Hyung Wook Kim
Jin Dong Chan, Yong Soo Kim, Suk Young Kim, Euy Jin Choi, Byung Kee Ba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목 적 : 허혈성 신병증은 혈액학적으로 의의있는 신동맥 협착으로 인해 사구체 여과율의 현저한 감소 또는 신실질의 감소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정의되며, 말기신부전의 원인으로서의 유병율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 없으나 최근 당뇨병, 비만 및 노인 인구의 증가로 죽상 경화증에 신동맥 협착의 발생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허혈성 신병증도 증가하고 있다. 저자들은 허혈성 신병증으로 진단한 20예에 대한 임상적 고찰을 보고하고자 한다.

방 법 : 2002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허혈성 신병증으로 진단을 받은 23예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대상 환자의 평균나이는 67.8세 였고, 남녀 비는 13:10이었다.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3명, 고혈압이 10명이었고 당뇨병과 고혈압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10예였다. 동반질환으로 허혈성 심질환이 00명, 뇌혈관 질환이 00명, 말초혈관 질환이 2명에서 있었다. 13명에서 양측 신장크기의 차이를 보였다. 17예에서 MR angiogram을 시행하였고 단측 혈관 병변이 9예, 양측 혈관 병변이 6예였다. 경피적 혈관 성형술은 (PTRA) 3예에서 시행되었다. PTRA 전, 12개월 후 신기능은 1명에서 호전되었고 2명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악화된 경우는 없었다. PTRA 전 혈압약 수는 차이가 없었으나 PTRA 후 혈압은 정상으로 조절되었다.

결 론 : 신동맥 협착에 의한 허혈성 신병증은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조기에 진단될 경우 신기능을 회복시키거나 말기 신부전증으로의 진행을 완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질환이다.